현대불교

제 81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12월 15일 수요일(음력 11월 18일 · 불기 2554년 · 주간)

“진실로 대하면 절로 포교돼”

제1호 명예국제포교사 브라이언 베리

“국제포교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식을 전달하고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몸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제1호 명예국제포교사로 선정된 브라이언 베리(66, Brian A. Barry)는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포교사회 품수식에서 자격증을 수여했다.

브라이언은 미국 코네티커트 대학에서 1968년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1967년 전북 부안 변산반도에서 평화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매료돼 졸업 후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후 40여 년간 탱화를 비롯한 불교미술 제작과 번역을 바탕으로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암 투병 중인 브라이언 베리는 자격증을 받은 것에 개의치 않고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특별한 수행이 있지 않고서는 내 병과 고통을 남이야기 처럼 하기란 쉽지 않아보였다.

브라이언은 “저에게 포교이자 수행은 탱화를 그리는 것이니까 계속 하고요. 또 번역활동도 그대로 하고요. 저는 이판사판에서 사판이에요(웃음). 참선을 많이 못하고, 수행이라고 해봐야 탱화 그리는 것이 다거든요. 수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모두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투병도 그냥 병 수행 한다고 생각해요. 어디 안 아픈 사람 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라며 거창한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브라이언 베리와 학인 스님 4명을 포함해 30명의 국제포교사가 품수를 받았다.

글=이상언 · 이나은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템플스테이 예산 대폭 삭감…조계종 강경 대응

“4대강 사업 반대 종교편향 용납 않겠다”

정부지원 템플스테이 예산이 185억원에서 109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 조계종은 졸속적 · 폭력적이라며 정부 지원 예산 전면 거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 여당 관계자의 사찰 출입 금지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MB정부 출범 이후 종교편향을 원인으로 계속돼 온 조계종과 정부의 갈등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을 계기로 더욱 악화되게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국회 예산안 통과 직후인 12월 8일에 이어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 종무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회의는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가운데, 조계종은 정부 · 여당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모두 끊고, 정부 · 여당 관계자의 총무원 청사 접근도 막기로 결의했다.

특히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교역직 스님을 비롯해 차 · 팀장이 참여한 9일 긴급 확대종무회의에서는 정부의 템플스테이사업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조계종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총무부장 영담 스님을 위촉했다.

조계종은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국 본사주지회의와 템플스테이사찰주지회의, 원로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해 종단의 강경한 입장을 적극적 ·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같은 날, 조계종은 ‘졸속적이고 폭력적인 국가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제하의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의 국회 예산안 단독 통과를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화쟁위원회’와 ‘4대강사업국민적논의위원회’를 구성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해 왔다”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채 새해 예산안이 처리돼 불교계의 충정과 국민의 우려를 무참히 짓밟혀졌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이 불교계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 ‘템플스테이’ 예산을 종교편향적 입장을 갖고 삭감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계종은 성명서에서 ▷정부지원 예산 전면 거부 ▷정부 · 여당 관계자 사찰출입 거부 ▷4대강 사업 반대 ▷전통사찰법 전면 폐지 ▷자연공원내 사찰 경내지 · 사찰림 해제를 촉구했다.

조계종의 강경한 분위기가 전해지자 9일 오전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정병국 · 조윤선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조창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지만 예방은 성사되지 못했다.

견지동 일대에서는 이번 템플스테이 예산안 파문과 관련해 국비 지원에 의존하는 조계종의 체질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정부가 불교문화 관련 지원에 있어 민원 해소 차원이 아닌 정책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불교계-정부간 갈등이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조동섭 기자

“장로 대통령이 민족문화 말살”

조계종 중앙종회 ‘정부의 종교차별 종식 및 종교평화 확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경)는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끝났다’ 제하의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은 날치기 예산통과로 국민을 우롱하고 불교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더 이상 한나라당과 현 정부에 대해 어떠한 신뢰와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종교차별종식 특위는 ▷전국 사찰에 정부 비판 현수막 게시 ▷선거등에서 여당 · 정부지지 철회 ▷불교행사시 여당 · 정부 인사 출입금지 등을 실천키로 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환경연대 등 12개 불교단체가 참여하는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 · 여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를 비판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워 생명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현 정권과 거대 여당을 향해 강력히 맞서고, 온 국민의 힘으로 파사현정의 죽비를 내리칠 때까지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종책모임 보림회(회장 영배), 화엄회(회장 성직), 법화회(회장 정념)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보림회는 9일 ‘장로 대통령은 민족문화를 말살해도 되나’ 제하의 성명서에서 “졸속적이고 폭력적인 국가예산안 통과를 규탄한 조계종 총무원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화엄 · 법화회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MB정부 · 한나라당과 소통을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법응 스님은 “조계종은 그동안 정권에 대한 그릇된 정책과 식견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해왔다”며 “종정 예하의 교시 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불교도 서명운동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무소속 의원모임도 “조계종단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정부 · 여당의 비민주적인 폭거에 매섭고 강단진 모습으로 대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조동섭 기자

정찬주의 행복한 禪여행 ⑥

법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밀인사 2

불교사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 관계의 효시는 부처님과 10대 제자들이리라. 사리불이나 목련, 가섭존자 등은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떠 아라한이 됐던 것이다. 그러나 인도불교는 부처님 열반 뒤, 또 다른 스승과 제자 관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쇠퇴하고 만다. 무불시대(無佛時代)에 보살의 출현은 있었으나 수행보다는 논쟁만 일삼는 사변(思辨)의 승가로 변해갔고 결국 대중에게 외면당했던 것이다.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불교를 크게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는 수행과 법으로 맺어진 스승과 제자 관계의 복원이 아니었을까. 초조가 되어 사제(師弟) 간에 활발발한 법으로 이어지는 법맥은 당송시대까지 흘러가 중국선종을 꽃피우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선종도 명청시대를 거치면서 사제 관계가 세속의 장자 상속처럼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한국불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에는 승속을 불문하고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심혼(心魂)에 불을 밝혀줄 선지식의 교화가 세상에 퍼지지 못하고 문도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인도불교의 쇠락이 보여주었던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미래를 걱정하면서 수행과 법을 기둥으로 삼지 않고 허장성세나 방편에만 치우친다면 세계화는커녕 불교를 고사케 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터. 안국선원 순례자 일행이 들어선 밀인사의 1200년 역사와 흥망성쇠도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19면에 계속

법보시 (국민은행) 023-25-0005-381 예금주:현대불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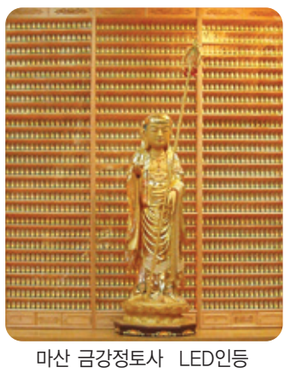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